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6.07.01~26.07.31)

- **미국 교통부(DOT), 버지니아주 햄프턴 로즈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3억 1,020만 달러 대출 지원 발표 [7/1]**
 - 미국 교통부(DOT)는 버지니아주 햄프턴 로즈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물류 유통망을 강화하기 위해 3억 1,020만 달러 규모의 연방 대출 지원을 발표함
 - 해당 자금은 빌드 아메리카 국(Build America Bureau)의 연방인프라금융지원법(TIFIA) 프로그램을 통해 햄프턴 로즈 교통책임위원회(HRTAC)에 전달됨
 - 주요 사업 대상은 통근 차량과 화물 수송이 집중되는 핵심 교통 축인 I-64 및 I-464 고속도로 회랑 지역임. 해당 정비 프로젝트에는 기존 일반 차로 및 다승차 차량(HOV) 차로의 유료 차로 전환, I-64/I-464 나들목(IC) 구간 개선, 스마트 무정차 통행료 부과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됨
 - 이번 사업은 미국 동부 해안의 주요 거점인 버지니아 항구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병목 현상을 해소하여 화물 이동 효율성과 지역 경제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됨
 -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도로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고 지역 사회에 수백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고 지적함. 이어 이번 햄프턴 로즈 급행차로 네트워크 구축이 교통 정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도로 안전을 높이며 지역 경제력을 강화할 혁신적 투자임을 강조함
- **뉴욕시 주택청(NYCHA), 브롱크스 NYCHA 캠퍼스 내 229가구 규모 서민 실버주택 '솔 온 파크' 금융 종결(Financial Closing) 승인 발표 [7/1]**
 - 뉴욕시 주택청(NYCHA)은 브롱크스 지역 NYCHA 모리스 하우스(Morris Houses) 캠퍼스 내 고령층을 위한 229가구 규모의 서민 실버주택 개발 프로젝트인 '솔 온 파크(Sol on Park)'의 금융 종결(Financial Closing)을 완료했다고 발표함
 - 총사업비 2억 1,400만 달러 규모인 이번 프로젝트는 뉴욕시 주택청(NYCHA)을 비롯해 뉴욕시 주택보전개발국(HPD) 및 주택금융공사(HDC)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됨
 - 시공은 NRP 그룹, 셀프헬프 리얼티 그룹(Selfhelp Realty Group), 폭시 매니지먼트(Foxy Management)가 맡아 즉시 착공에 들어가며, 2029년 초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진행됨. 공급 예정인 총 229가구 중 80가구는 기존 모리스 I-II 단지 주민에게 우선 배정되며, 69가구는 무주택 고령층에게, 나머지 79가구는 하우징 커넥트 로터리를 통해 저·중소득층 고령층에게 배정될 예정임
 - 이번 프로젝트는 공공 부지와 정부 투자, 혁신적 금융 도구를 결합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전달 이전' 방식을 적용하여 공공주택 재건의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평가받음
 - 맘다니 뉴욕 시장은 뉴욕 시민들에게 절실한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도구를 동원하고 있음을 강조함. 아울러 공공 토지와 민간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 NYCHA 주민과 지역 어르신 모두를 위한 서민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힘

□ **미국 교통부(DOT),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전국 공항 인프라 현대화에 17억 7,600만 달러 투자 발표 [7/2]**

- 미국 교통부(DOT)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전국 공항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연방항공청(FAA)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함. 이번 투자는 '교통의 황금기'를 열겠다는 국정 기조에 맞춰 활주로 재건, 안전성 강화, 가족 친화적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며 미국 항공망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주요 공항별 자금 배정 및 사업 내용으로는 덴버 국제공항(8,880만 달러, 포장도로 개보수 및 정비), 보이시 공항(7,400만 달러, 활주로 재포장·계류장 확장·시각 유도 등화 장치 업그레이드), 볼티모어/워싱턴 국제공항(6,240만 달러, 활주로 및 조명 시설 개보수) 등이 포함됨. 또한, 휴스턴 하비 공항(6,220만 달러, 신규 활주로 건설),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4,760만 달러, 유도로 신설 및 항공기 구조·소방 건물 재건축), 올랜도 국제공항(3,600만 달러, 터미널·유도로·조명 시설 재단장) 등도 대상에 이름을 올림
-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영광스러운 미국 역사에 부응하는 항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힘
- 이어 브라이언 베드포드 연방항공청 청장은 이번 보조금 집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최우선순위로 추진 중이라며, 단순한 활주로 단장을 넘어 가족 단위 여행객의 이용 편의성을 현대화하고 향후 미래 수요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함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제6회 혁신 주택 쇼케이스 '메이드 인 아메리카' 주제 발표 [7/2]**

-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2026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서 개최되는 '제6회 혁신 주택 쇼케이스'의 주제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를 발표함
-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주택 공급 확대, 건설 비용 절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목표로 미국의 혁신 기술 및 공법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됨
- 주요 프로그램은 실제 크기의 시제품 주택 전시, 상호작용형 체험 전시, 최신 건축 기술 소개, 전문가 주도 토론회 등으로 구성됨. 이를 통해 전국의 주요 혁신가와 건설업체, 정책 입안자 및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임
- 본 쇼케이스는 무료로 일반에 공개되는 가족 친화적 행사이며, 현재 주택도시개발부(HUD)는 혁신 주택 기술과 건축 자재, 시공 공법 등을 전시할 출판 기업 및 기관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음
-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미국 주택의 미래는 바로 이곳 미국에서 건설된다고 강조하며, 건국 250주년을 맞아 개척자 정신으로 주택 혁신을 이끄는 건설자 및 제조업체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다음 세대 미국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 **미국 교통부(DOT),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프라 확충에 17억 3,000만 달러 투자 발표 [7/7]**

- 미국 교통부(DOT)는 미국의 지상 교통망 개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사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7억 3,0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함
- 이번 자금은 BUILD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집행되며, 미국 50개 주 전체와 영토, 워싱턴 D.C.를 포함한 52개 지역의 총 127개 프로젝트에 배분됨
- 분야별 주요 투자는 도로 및 교량 부문에 전체 예산의 77%인 약 13억 달러가 집중 배정되며, 대중교통 시스템에 1억 6,990만 달러, 항만 인프라에 1억 3,680만 달러, 화물 및 여객 철도에 8,770만 달러, 기타 부문에 1,100만 달러가 투입됨

- 세부 사업으로 도로 및 교량 부문은 노후 도로 복구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스다코타주 주간 고속도로 제94호선(I-94) 노면 교체 및 안전 가드레일 설치 사업에 2,400만 달러를 지원함. 대중교통 부문은 위스콘신주 밀워키 카운티 교통시스템(MCTS) 정비 시설 업그레이드에 1,470만 달러를 배정하며, 항만 부문은 알래스카 수어드 항구의 화물 부두 확장 사업에 850만 달러를 투입해 물류 하역 속도를 높일 계획임
- 또한, 철도 현대화를 위해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 항만청의 내륙항 철도 노선 연장 사업에 2,430만 달러를 지원함. 이 외에도 트럭 주차 공간 확충과 아리조나 및 루이지애나주의 공항 진입 도로망 개선 등에 1,100만 달러가 고루 활용됨
-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백악관에 인프라의 중요성을 잘 아는 건설가인 트럼프 대통령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투자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로·교량 보수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항만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밝힘. 아울러 해당 자금의 혜택이 향후 수년간 미국 전역의 지역 사회에서 직접 체감될 것이라고 언급함

□ **뉴욕시 주택청(NYCHA), 하일랜 하우스 현대화를 위한 '점진적 설계·시공 계약' 체결 발표 [7/7]**

- 뉴욕시 주택청(NYCHA)은 브루클린 부시윅에 위치한 공공주택 단지 '하일랜 하우스'의 아파트 및 공용 공간 현대화를 담당할 업체로 '테크니코 건설 서비스(Technico Construction Services)'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이번 계약은 뉴욕시 주택청(NYCHA) 자산에 '점진적 설계·시공(Progressive Design-Build)' 조달 방식을 도입한 최초의 사례로, 단지 현대화 프로젝트의 중요한 이정표가 됨
- 사업 대상은 19층 규모 1개 동, 총 209가구 전체이며 아파트 내부 및 단지 공용 공간의 종합적인 복구와 현대화 공사를 추진함. 특히, 점진적 설계·시공 방식을 적용하여 주민과 설계자, 시공자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협력함으로써 최선의 가치를 도출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 위험 절감 및 공기 단축을 도모할 예정임
- 오드리 프레이저 하일랜 하우스 임차인협회장은 이번 설계·시공 팀 선정은 주거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민들에게 매우 기쁘고 진전된 단계라고 밝힘
- 이어 뉴욕시 주택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안전하고 현대적인 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함

□ **미국 노동부(DOL), 초등학교 지하 공간 사고 관련 텍사스 시공업체 및 인력파견업체 적발 [7/15]**

-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텍사스주 컨버스 소재 초등학교 지하의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소형 굴착기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 시공업체 및 인력파견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법적 조치를 취함
- 이번 조사는 밀폐 및 국소 공간 작업 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 수칙 미비와 근로자 보호 의무 소홀을 엄중히 묻기 위해 진행됨
- 사고는 초등학교 건물 하부의 좁은 공간에서 소형 굴착기를 운용하던 중 발생함. 조사 결과 시공업체는 작업 진입 전 유해 가스, 환기 상태, 구조적 위험 등 제반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 및 시정 절차를 누락했으며, 비상 대피·구조 장비와 개인 보호 장구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시공업체와 인력파견업체 모두 파견 근로자에게 사전 안전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위험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됨

-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원청 시공업체뿐만 아니라 인력 공급을 담당한 인력파견업체 역시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법적·도덕적 공동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함. 또한, 유사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하 및 밀폐 공간 작업 시 관련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비상 응급 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것을 사업주들에게 강력히 당부함

□ **캘리포니아 주택지역사회개발부(HCD), 주택 보급 가속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서민 주택 개혁 법안 서명 발표 [7/13]**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6-27년도 주 예산안의 일환으로 서민 주택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 예산 관련 법안(AB 179)에 최종 서명함
- 이번 개혁 법안은 복잡한 금융 및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건설 비용을 낮춤으로써 저렴한 주택 공급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목적이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서민 주택 건설 과정에서의 중복 심사 축소 및 개발 수수료 경감을 통해 가구당 약 6만~7만 달러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포함됨. 또한, 2027년도에 9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여 지방 정부의 노숙인 방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인구 30만 이상 도시 및 카운티의 책무성을 강화함. 이와 함께 재해 피해 주민의 재건축 금융 비용을 낮추기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재개발 기금과 5억 달러 규모의 주(State)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 혜택도 함께 추진됨
- 뉴섬 주지사는 그간의 성과로 2019년 이후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개발 승인 소요 시간을 평균 160일에서 68일로 57% 단축시켰으며, 연간 주택 건설량 역시 2018년 약 7만 가구에서 2024년 11만 1,000가구로 59% 증가했다고 밝힘
- 이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건설 비용을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금융 개혁 법안을 통해 연방 및 주 정부 자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은 주거 기회를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임

□ **미국 노동부(DOL), 굴착 붕괴 사고로 근로자 입원시킨 휴스턴 배관 시공업체에 34만 달러 과태료 부과 [7/15]**

-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텍사스주 알빈 지역 주택 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면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휴스턴 소재 유틸리티 시공업체 '블레이지 건설 서비스 (Blazey Construction Services LLC)'의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총 34만 3,797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이번 사고는 하수도 및 상수도 관로 설치 작업 중 굴착면이 붕괴되어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발생함.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굴착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작업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 탈출 수단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근로자 입원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보고해야 하는 연방법상 의무 역시 준수하지 않음. 이에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 및 과거 적발 사례에 따른 반복 위반 2건, 기타 위반 1건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함
- 이에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굴착 작업 시 토사 붕괴 방지 시설 구축과 안전한 대피 통로 확보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조치임을 재강조함. 아울러 사업주가 법규를 준수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청 차원의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과 안전 리소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함